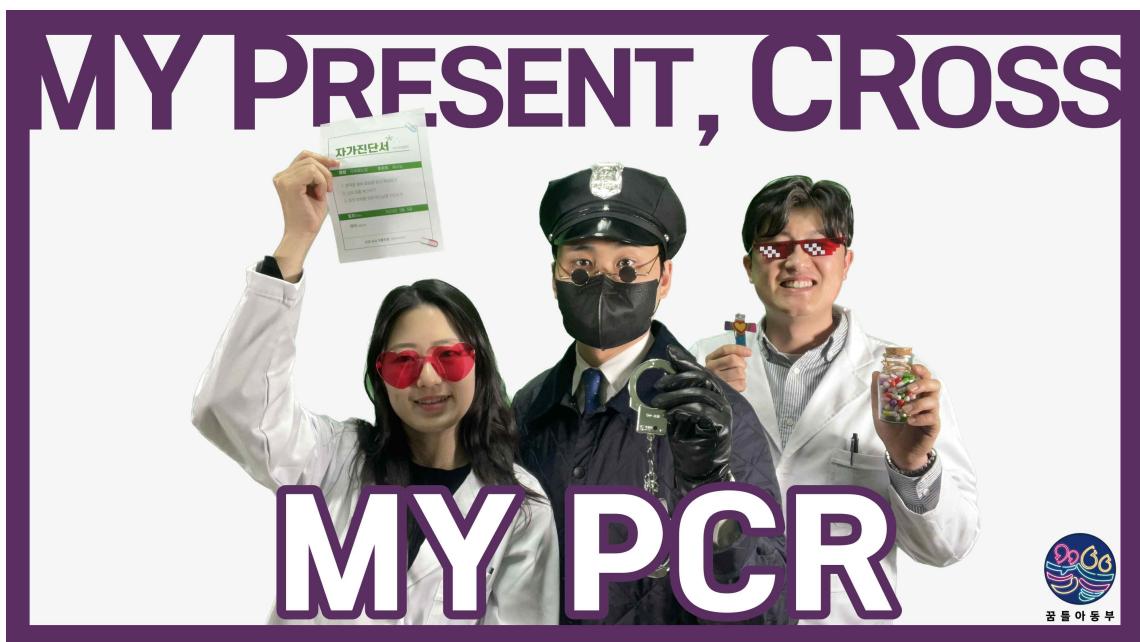


아동부 브릿지온 사순절 패키지
– MY PCR (MY PRESENT, CROSS) –



안산제일교회 꿈틀아동부

I. 프로그램명 : MY PCR (MY PRESENT, CROSS)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지금(present),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present)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있기에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었다. 사순절 기간, 이러한 죄와 십자가에 대해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자 한다.

II. 기간

2023년 2월 26일(주일) ~ 2023년 3월 26일(주일) / (총 5주)

III. 컨셉

‘세계관’, 혹은 ‘유니버스’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다. 본래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철학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같은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요즘은 주로 “각종 창작물에서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가상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일련의 설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러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는 유튜브 채널들까지 이러한 세계관을 이용한 창작물들이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 **MY Present, CRoss**(이하 MY PCR)는 이러한 세계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MY PCR에서 설정한 세계관은, ‘죄 바이러스 세계관’이다. 죄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 가운데,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은 죄인으로 분류되어 체포된다. 이러한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뿐인데,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일상 가운데서 오랜 기간 몸에 쥐고, 자신의 죄들을 자가 검진하여 죄 바이러스를 치유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목과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MY PCR은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착안했다. PCR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대두된 검사 방법이다.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순절 기간, 이러한 PCR 검사의 원리를 우리(아이들) 안의 죄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우리(아이들) 안의 죄를 검사하고, 판별한 죄들을 회복해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의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를 제시한다. 우리 안의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당하심으로 사하여졌음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IV. 내용

1. 2월 26일(주일) / 사순절 첫째 주일

첫째 주일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사순절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으로 갖는다. 안산제일교회 아동부에서는 누가복음 23장 39-43절 말씀¹⁾을 본문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 사하여졌음을 설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함을 결단하게 한다.

2. 3월 5일(주일) / 사순절 둘째 주일 - 죄 검사

둘째 주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먼저 예배당 입구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맞이한다. 맞이하는 사람은 경찰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경찰로 분한다. 아이들에게 “당신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손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운다. 이 때, 위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수갑을 채우며 차례대로 아이들을 예배당으로 들여보낸다. 아이들이 다 입장할 때 까지, 찬양팀은 계속해서 ‘십자가 그 보혈’²⁾을 찬양한다.



< 그림 1 : 경찰분장 예시 >



< 그림 2 : 수갑을 채우는 모습 >

아이들이 다 입장하면, ‘십자가 그 보혈’ 한 곡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한 후, 바로 설교로 넘어간다. 비록 장난감 수갑이지만, 아이들의 팔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므로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않도록 한다. 설교자는 약사, 혹은 의사

1)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2) “십자가 그 보혈(고난주간)” 유튜브 비디오, 2:23, 게시자 “리조이스 Rejoice” 2019. 4. 12. <https://www.youtube.com/watch?v=P3QUVRyOt0k>

로 분하여 등장한다.



< 그림 3 : 약사 분장 예시 >



< 그림 4 : 약사 분장 예시 >

설교자는 ‘닥터 J’, ‘요원 A’ 등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MY PCR의 세 계관에 대해 설명한다. “여러분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 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해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체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회복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짧게 말씀을 전한다. 안산제일교회 아동부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본문³⁾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의 죄 바이러스는 세상의 기술이나 방식으로는 완전히 치유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설교를 마친 후 교사들은 아이들의 수갑을 풀어준다. 그리고 십자가를 건네주며, 저마다 십자가를 꾸미도록 한다.



< 그림 5 :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십자가 >



< 그림 6 : 아이들이 꾸민 십자가 >

특별히 십자가를 꾸밀 때, 이 십자가는 앞으로 거의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매일

3)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지니고 있어야 함을 강조해준다. 따라서 열쇠고리 형태나 목걸이 형태, 팔찌나 가방 걸이 등,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작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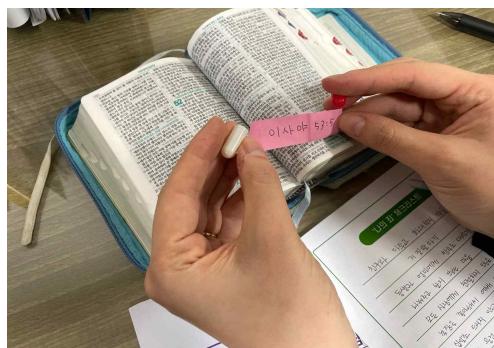


<그림 7 : 치료제 키트>

십자가를 다 장식하면, 위와 같은 ‘치료제 키트’를 나누어준다. 치료제 키트는 약봉투, 알약(한 봉투에 여섯 알), 설명서, 그리고 자가진단서로 구성되어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사용법(사용법은 다음 문단에 자세히 기술 되어있음)을 설명해주고, 다음 주에 아이들이 치료제 키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3월 6일(월) - 3월 11일(토) / 사순절 둘째 주일 - 죄 자가진단

아이들은 저마다 꾸민 십자가를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지니고 다닌다. 학교, 학원,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할 때 등 어느 때든지 최대한 지니고 다니도록 한다. 그리고 취침 전, 치료제 키트를 사용한다. 치료제 키트 사용 순서는 ‘(1) 십자가 책상 위에 올려두기 - (2) 설명서 읽기 - (3) 알약 말씀 묵상 - (4) 자가 진단서 작성’으로 구성된다.



<그림 8 : (3) 알약 말씀 묵상>



<그림 9 : (4) 자가 진단서 작성>

(1) 십자가 책상 위에 올려두기

매일 치료제 키트를 사용하기 전, 자신이 꾸민 십자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마음

을 정돈한다.

(2) 설명서 읽기

치료제 키트 설명서를 읽는다. 어느 정도 치료제 키트 사용에 익숙해지면, 이 순서는 생략해도 좋다.

(3) 알약 말씀 묵상

알약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여섯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에 한 개씩 열도록 하며, 위에 기재한 색깔 순으로 열 수 있도록 한다. 알약을 열면 말씀이 적혀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5”⁴⁾라고 적혀 있으면, 아이들은 성경으로 그 말씀을 찾아 묵상한다. 알약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십자가 고난 등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말씀들로 준비한다.

(4) 자가 진단서 작성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작성한다. 옆에 네모 칸이 있는데, 그 네모 칸은 사순절 셋째 주일부터 사용하므로 어떤 표시도 하지 않도록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다 작성한 후, 이러한 죄들을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또한, 이러한 죄들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4. 3월 12일(주) / 사순절 셋째 주일 - 자가 진단한 죄 나눔

아이들은 약봉지를 제외한 치료제 키트와 십자가를 전부 교회에 갖고 출석한다. 지난 주일과 같이 설교자는 약사 혹은 의사 복장을 하고 등장한다. 예배를 드린 후, 우리가 자가 진단 키트에 작성한 죄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예배를 마친 후, 각 반 별로 모여 자신들이 자가 진단한 죄들을 나눈다. 또한,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니며 살아가는 것이 어땠는지도 함께 나눈다. 나눔 시간을 마치며,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약봉지를 치료제 키트에 담아준다. (약봉지는 마찬가지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여섯 가지가 들어있으며,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말씀들로 준비한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번 주도 똑같은 순서로 치료제 키트를 사용하도록 권면한다. 다만, 마지막 순서인 ‘(4) 자가 진단서 작성’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적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면서, 자신들이 작성한 죄들 중 또 범하게 된 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네모 칸에 체크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체크한 자가 진단서와 십자가를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갖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 3월 13일(월) - 3월 18일(토) / 사순절 셋째 주일 - 자가 진단 심화 I

아이들은 지난 한 주간과 마찬가지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한다. 순서는 '(1) 십자가 책상 위에 올려두기 - (2) 설명서 읽기(아직 순서 숙지가 미흡할 경우) - (3) 알약 말씀 묵상 - (4) 자가 진단서 체크'로 구성된다. (1), (2), 그리고 (3)의 순서는 위문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4) 자가 진단서 죄 체크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4) 자가 진단서 체크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자신이 죄를 작성해 놓은 자가 진단서를 보고, 오늘 또 범한 죄가 있다면 옆에 해당하는 네모칸에 체크한다. 그리고 이 죄에서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림 10 : 자가진단서 체크>

6. 3월 19일(주) / 사순절 넷째 주일 - 체크한 죄 나눔

아이들은 말씀 알약을 제외한 치료제 키트 구성품 전부와 십자가를 갖고 다시 교회로 나오도록 한다. 설교자는 지난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의사 혹은 약사로 분하여 등장한다. 설교를 통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그러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배를 마친 후 반별로 모여, 도저히 회복되지 않았던 죄에 대해 나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약봉지를 치료제 키트에 담아준다. (약봉지는 마찬가지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여섯 가지가 들어있으며,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말씀들로 준비한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번 주도 똑같은 순서로 치료제 키트를 사용하도록 권면한다. 또한 이번에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았던 죄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7. 3월 20일(월)-3월 25일(토) / 사순절 넷째 주일 - 자가 진단 심화 II

아이들은 지난 순서들과 마찬가지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한다. 순서는 '(1) 십자가 책상 위에 올려두기 - (2) 설명서 읽기(아직 순서 숙지가 미흡할 경우) - (3) 알약 말

씀 묵상 - (4) 자가 진단서 체크'로 구성된다. 이번 (4) 자가 진단서 체크 순서에서는 만약 새롭게 범하게 된 죄가 있다면 추가로 작성한다. 또한, 도무지 고쳐지지 않던 그 죄들을 범하지 않았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도록 한다.

8. 3월 26일(주일) / 사순절 다섯째 주일 - 십자가에 못 박기

마찬가지로 설교 때에 약사 및 의사로 분한 설교자가 등장한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회복되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안산제일교회 아동부에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할 것이다. 말씀을 마친 후, 아이들이 가지고 온 십자가를 커다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이들이 직접 하기엔 어려우니, 아이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면 그 십자가를 설교자 혹은 교사가 못 박아주도록 한다.



<그림 11 : 십자가에 못 박기 1>



<그림 12 : 십자가에 못 박기 2>

아이들이 직접 꾸민 십자가이며, 약 3주의 시간 동안 매일 같이 지니고 있었다. 또한 자기 전 마음을 정돈할 때 함께 했었다. 아이들은 그러한 십자가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아이들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는 활동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슬픔을 느끼며,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 활동을 마친 후, 반 별 시간을 갖는다. 십자가를 못에 박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지난 한 주간 나의 죄 자가 지단은 어땠는지 등 각자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눈다.

마무리하며, 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선물(present)이며, 우리는 지금도(present)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아이들이 부활절 전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결단하도록 권면한다.